

꿈 사랑*

한국틴스타 소식지 통권 제56호



- 02 들어가는 글_함께 배우고 함께 가르치고 함께 성장하는 틴스타 선생님께_양주열 신부
- 04 지면강좌_'사랑의 기쁨 가정의 해'를 마무리하며_손호빈 신부
- 08 교육후기_많은 이들이 틴스타를 통해 '성'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갖기 바라며 _유재걸 신부
- 09 교육후기_사제와 성교육을? _정성호 신부
- 10 교육후기_성령 특은의 인호를 받으시오!_허혜주 아나스타시아 수녀
- 12 틴스타 지금 _지역소식, 수업현장, 한국틴스타 소식, 전국교사모임 안내

6

2022

함께 배우고 함께 가르치고 함께 성장하는 틴스타 선생님께

양주열 베드로 신부
(한국틴스타 대표)

급격하게 사회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에 공감하십니까? 여러분께서는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느껴지십니까? 이러한 변화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야기는 오고 가지만 대화과 소통은 없는 관계

자주 다니는 상점에서 손님과 직원이 실랑이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연배 있으신 손님이 반말과 존댓말을 섞어서 불만을 표시하였습니다. 직원은 손님의 반말이 기분이 나빴고, 손님은 직원의 기분 나쁜 표정이 싫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생각했고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행했던 사람들도 서로 의견이 달랐습니다. 반말을 섞어서 말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반말만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저마다의 입장과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이야기는 하였지만 대화도 소통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은 아무도 중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적어도 최소한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만이라도 사과하라는 제안에 대해 상대방이 먼저 잘못하였기 때문에 내가 사과할 것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상식과 원칙, 공정과 정의를 주장하지만 설득도 공감도 얻지 못하고 답답한 현실과 분열된 사회 관계를

보는 듯했습니다.

성이라는 용어가 젠더로 대체되고 혼인 이외의 관계에서도 부부 관계의 정당성 요구하는 현실

사회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알아차리고 그 안에서 적응하고 적용하며 살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교육의 측면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성이라는 용어가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사회적, 정신적 기준의 젠더로 대체되고, 혼인을 통해 이루는 가정 안에서 부부의 관계가, 아직 혼인하지 않은 남녀를 비롯한 모든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인간적인 정당성을 요구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한 변화에 대해 틴스타 교사는 어떻게 적응하고 적용해야 할지에 대해 숙고해야 합니다. 어른의 권위와 지혜, 연륜의 가치가 존중되지 않는 세상에서 새로운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왜곡된 정보가 가치로 자리매김 된 세상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기쁜 소식을 선포해야 하는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제16차 세계주교시노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노드 정신(시노달리타스)은 '함께 걷는 방식/여정'입니다.

틴스타 교사는 동반하는 사람들입니다

틴스타 교사는 함께 동반하는 사람들입니다. 틴스타 교사는 재판관도, 경찰도, 윤리교사도 아닙니다. 잘잘못이나 선악을 구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적 존재인 인간의 가치를 증거하며 전달하고 동반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이제까지의 틴스타 교사는 틴스타 철학이 제시하는 인간 생식력과 자기 결정능력의 가치를 강조하고 교육하는 사람들이었고, 참가자들은 교육을 배우고 익혀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면서 인격적인 존중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요청되는 사회를 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반말이 섞인 존댓말이나 존댓말인 척하면서 무시하는 태도가 저항 받은 순간이었거나, 자존감이 부족하고 피곤한 현실 조건 때문에 감당하지 못한 결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주 다니는 상점에서의 일화에서처럼 아무도 중재에 나서지 못한 우리 역시 그런 변화 안에서 소통 능력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중요한 것은 틴스타 교사의 인격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인격적 태도입니다. 반말과 존댓말을 은연중에 섞어 사용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이제는 누군가를 불편하게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변화와 존중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당연하다고 가르치며 전달했던 내용에 대해 불편해 하거나 거부하는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문제가 된 것은 내용이 아니라 태도와 소통의 방법입니다.

가치를 전달하는 틴스타의 방식은 선택의 의미를 스스로 식별하도록 동반하는 것입니다.

틴스타 교사가 성의 가치를 전달하는 방식은 '왜 그러한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잘잘못이 아니라 그 선택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상대방에게는 어떤 의미였는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식력과 자기결정능력에 대해서도 '성은 이리해야 한다'고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읽고, 질문하고 함께 생각과 체험을 나누고, 식별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여정을 동반하는 사람이 바로 틴스타 교사입니다. 이렇게 함께 동반하는 방식은 긴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틴스타 교사의 관심과 경청, 존중은 함께하는 이들에게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틴스타 교사들도 새롭게 변화해야 하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틴스타 교사 여러분, 만나서 함께 하는 이들의 필요와 관심에 귀 기울여 경청해 주시고, 인격적인 태도로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틴스타 교사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을지라도 인격적인 태도는 함께 하는 이들을 옳은 길로 나아가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하고 효과적인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변화하는 세상 안에서 함께 배우고 함께 가르치고 함께 성장하는 틴스타 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사랑의 기쁨 가정의 해’를 마무리하며

-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혼인의 불가해소성

손호빈 디오니시오 신부
(서울대학교)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문헌,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 반포 5주년을 맞아 지난 2021년 3월 19일에 ‘사랑의 기쁨 가정의 해’가 시작되었고, 2022년 6월 ‘제10차 세계가정대회’를 통해 폐막되었습니다. 교황님의 문헌, 「사랑의 기쁨」은 오늘날 많은 어려움 속에 처한 가정 공동체에 위로와 힘 그리고 희망을 전해주며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의 소명을 일깨워줍니다.

그러나 「사랑의 기쁨」을 위해 마련되었던 2015년 가정 시노드를 비롯하여 문헌이 반포된 이후 일각에서는 몇 가지 사항을 두고 가르침인 교리-엄밀히 말하자면 교의-를 사목적 배려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동성 결합과 이혼 후 재혼한 이들의 영성체였습니다. 이를 두고 적지않은 매체들은 마치 교회의 가르침인 교리와 사목이 대립하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교회의 가르침을 오늘날 시대에 뒤쳐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숨막히게 하는 유물처럼 취급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향해 시대의 요청에 따라 교리를 수정하고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가르침인 교리와 교회법은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질서를 성령의 도우심과 올바른 지성과 양심으로 해석하여 정립한 것이지 교회가 필요에 의해 제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느님의 진리를 해석하고 수호하며 시대에 맞게 그 진리를 현명한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전달하

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목은 교리와 대립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교리는 사목에 힘을 실어주며 모호한 상황에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주고 무엇이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지 조명해주며, 우리가 살아갈 숨을 불어넣어 줍니다.

왜 세상은 교회의 가르침인 교리가 인간의 마음을 숨막히게 한다고 생각할까요?

사실 ‘교리(엄밀히 말하자면 교의)’라는 단어가 오늘날 좋은 명성을 지니고 있지는 않습니다. ‘진리’라는 단어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포스트모던 시대에 이 단어는 평가절하당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이 우리의 구체적인 역사에 대한 강요와 억압을 말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교리는 또한 우리를 가두는 그물처럼 보여지며, 마음의 선한 움직임을 방해하고, 새로움의 지평을 걸어 잠그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교리’라는 말은 매우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신앙 안에서 교리는 우리의 삶에 그리고 예수님과 의 만남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과 매우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리는 추상적인 선언이 아닙니다. 또한 대다수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고통스럽게 살면 좋다는 복음주의적 이상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교 교리는 하느님 사랑과 인간을 구원하는 그분의 권능에 대한 역사입니다.** 교리는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의 곁에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믿음의 고백은 하느님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교 교리는 역사의 기원과 끝을 밝혀주는 결정적 이야기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리 안에는 성부로부터 시작하여 성부께로 돌아가는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의 여정에 대한 기억과 희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마음을 숨막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마음을 확 트이게 해주고 충만함으로 채워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근원을 기억하고, 우리가 걸어갈 방향을 명확히 하며, 생동감을 갖고 그 여정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교리가 사목적 돌봄에 필요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목자는 좋은 목장에서 양들과 함께 걸으며 그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교리에 대한 관심은 사목적 관심이 없습니다. 교리는 좋은 목자의 사목적 힘을 줍니다. 그래서 교리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은 사목적 관심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교리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관계인가요?

그리스도교 교리는 인간의 역사를 관통하는 하느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이며, 이는 성취되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 발걸음을 동행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자비는 우리를 그 분의 수준으로 올려주며,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주고, 우리의 품위를 강화시켜 줄 만큼 훨씬 더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느님의 자비로 힘을 얻어 그 분과 함께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리는 그저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교리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 **그분의 영원한 사랑과 근원적인 용서의 방법에 따라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이는 교리가 우리에게 단지 앞서 말한 복음주의적 이상, 도달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이상을 전해주는 것이 아닌 이유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교

리는 우리 삶 안에 복음이 육화하여 생긴 것입니다. 교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좋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예수님의 살아있는 이야기와 함께 ‘이렇게 사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살아갑시다’**하고 말합니다.

만약 교리가 이야기-우리 이야기-의 형식을 지니고 있다면, 우리는 매우 흥미롭고 위대한 사목적 빛을 갖게 됩니다. 만약 자신들의 사랑 이야기가 계속되고, 견고한 토대를 지니고, 영원한 약속을 보증해준다고 한다면, 어떤 부부가 흥미를 갖고 알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자신의 아이가 걸어가고 성장하는 한계를 변화시켜준다고 한다면, 어떤 부모가 흥미를 갖지 않겠습니까? 교리는 이런 기억과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혼인에 관한 교리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부부사랑을 동반하는 방법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혼인성사와 성체성사는 교리와 어떤 관계인가요?

성사들, 특히 성체성사는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를 어루만지고 우리를 당신 안에 일치시키는 터전입니다. 성사는 우리와 함께 걸으며, 당신의 박동으로 우리와 소통하는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사를 통해 ‘너희는 용서해라, 이는 나의 몸, 나의 사랑, 나의 시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사 안에서, 모든 전례 안에서 교리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느님 여정의 이야기와 하느님과 함께 하는 우리 여정의 이야기를 생생하고 명백하며 육화된 방법으로 우리에게 전달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사로부터 교리가 태어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사는 교리가 전해주는 신앙을 고백하는 참된 장소입니다. 교회는 그저 말로만이 아니라 세상과 사회 안에서 가시적이며, 공동체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따라서 교리는 육화된 교리이며, 우리 삶의 한

사건과 몸 그리고 시간에 연결되어져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한 유명한 금언은 이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도하는 법이 곧 신앙의 법이다.”(lex orandi, lex credendi). 전례를 거행하는 방법이 믿음을 고백하는 방법의 근원입니다.

이혼 후 재혼한 부부의 영성체 허용과 관련하여

이혼 후 재혼한 부부에 대한 영성체 허용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이 교리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사목적 배려의 문제일 뿐이라고 강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영성체를 허용하는 것이 예외적이라 할지라도 변경할 수 없는 것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이는 교리적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교리는 성체 성사에서 탄생했기 때문이며, 그리스도와와의 만남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사항에 대해 2015년 가정 시노드에서 논의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무엇보다도 전례 거행 안에서 교회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특히, 성체성사의 중심인 영성체를 두고 성체성사를 변경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교리적 결과를 초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체성사에 대해 말하는 것은 단순히 교리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가 탄생한 근원을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체성사와 혼인성사 간의 일관성**입니다. **교회의 생명에 있어 성체성사와 혼인성사의 일관성은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성체성사는 인간의 몸, 우리의 구체적인 관계 그리고 삶의 방식을 건설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며, 혼인성사는 창조 때부터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를 특별하게 해주고 부부라는 특별한 관계를 통해 하느님의 창조사업에 협력할 수 있도록 초대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체성사와 몸 사이에 맺고 있는 결합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교회의 특성을 위한 결합

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결합은 교회가 탄생한 근원적 샘이며, 하느님께서 교회를 통해 결실을 얻기 위해 활동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성체성사를 인간의 몸과 분리하는 것은 교회의 가르침을 추상적으로 만드는 것이며, 사회를 건설하고 삶을 빛나게 하는 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목적 활동을 해야 하나요?

교회의 이러한 규율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 교회의 사목적 제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는 “아니오”가 아니라 위대한 “예”입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예’는 하느님께서 활동하시고 교회를 통해 결실을 맺는 곳에 우리를 머물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체성사와 몸 사이의 이런 조화는 재혼한 사람들을 위한 희망의 길을 열어줍니다. 이 희망의 길이 시도드가 참된 새로움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길입니다. 이 길은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과 용서와 함께 그분의 이야기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화해의 여정입니다.

‘가정 공동체’는 우리에게 길의 출발점과 도착점을 알려줬지만, 이 두 지점 사이의 여정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명과 창의성은 여전히 남겨져 있습니다. 출발점은 교회에 속해 있는 세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환대해야 하고 동반해야 합니다. 도착점은 혼인성사와 성체성사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섹슈얼리티를 살아가는 방식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해야 할 큰 과제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지점 사이의 여정을, 화해의 여정을, 구체적인 표징들과 공동체의 동반과 함께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혼인의 불가해소성의 의미와 가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혼인의 불가해소성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혼인의 불가해소성이 족쇄가 아닌 은총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유동적인 관계인 우리 문화는 혼인의 불가해소성을 부담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자기중심적 개인과 시간에 대한 통제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선인 사랑의 관점에서 불가해소성은 새로운 힘과 능력입니다. 즉 하느님께서 부부에게 선물하신 서약하는 힘(나아가 서약을 지키며 살아갈 힘)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혼인은 불가해소적이다’라는 말은 우리의 이야기가, 모든 가정의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영원히’라고 말하는 방식과 용서를 베푸시는 방식을 따라, 대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셨던 방식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혼인의 불가해소성은 가정에 새 시간을, 그리스도 사랑의 시간을 선물해 줍니다. ‘시간은 공간보다 위대’합니다.

‘가정 교황’이신 성 요한 바오로 2세의 가르침은 가정 사목을 위해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참되고 가치있는 광산입니다. 오늘날 어떤 가르침이 재발견되어야 하고, 어떻게 그것을 심화시켜야 할까요?

광산이라 말했는데, 성 요한 바오로 2세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잠재력과 미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씨앗의 비유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성인은 교회의 미래는 가정의 길을 통해 나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성 요한 바오로 2세가 젊은 사제였을 때, 인간적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을 배웠고,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위대한 사명에 헌신한 그 분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현대 인간의 길을 따랐습니다. 그것은 경험의 길입니다. 하지만 ‘자기 지시적’(self-referential) 주체 안에 자기 자신을 가두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참된 경험은 사랑의 경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사랑은 인간의 길입니다.** 그리

고 교회는 사랑을 가르쳐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스승은 예수님이시고, 그 분은 사랑이십니다. 따라서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우리에게 세상에 동화되거나 사랑의 ‘세속주의’가 아닌 현대성과 대화하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인간의 신비를 인간에게 제시해준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출발점으로 해서 사랑의 진리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사랑의 기쁨」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우리는 생명을 복돋아주는 사랑의 능력을 믿을 수 있습니다. 사랑의 진리는 인간을 가두고, 화해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많은 형태의 ‘약한 사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한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우리에게 가정이 홀로 있음이 좋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며 가정을 위한 환경을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날 가정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고립’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사적인 실재처럼 이해합니다. 가정 교황인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우리에게 인간은 가정을 통해 태어나며, 가정 안에서 사회 또한 태어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공동선인지 그 안에서 배우기 때문입니다. 가정 안에서 혼인성사를 통해 교회 또한 건설됩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의 관점에서 보면 교회는 ‘큰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교회를 세우는 일원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선교와 사명을 위한 대체불가한 자원입니다.

* 본 글은 2015년에 작성된 인터뷰 기사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https://lanuovabq.it/it/jose-granados-il-matrimonio-indissolubile-come-vivere-il-tempo-con-gli-occhi-di-gesu>

많은 이들이 틴스타를 통해 '성'(Sex)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갖기를 바라며

유재걸 프란치스코 신부

(제1대리구 복음화 2국장,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

+찬미 예수님

수원교구 유재걸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저는 제184차 온라인 교사양성워크숍을 수료했습니다. 온라인 과정은 장소의 변동이 없는 편리함은 있었지만 저녁 8시에서 10시까지 모니터 앞에서 집중하고 있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들 열심히 하시는데 빠질 수도 없고 졸 수도 없고 난감한 상황에서 12주간의 여정을 겨우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열정적인 강사 신부님들과 수녀님 선생님들께 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잘 배웠지만 아직 강의 중에 들었던 전문 용어에 대한 숙지가 부족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벌써 4개월 여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래도 여전히 머릿속에 남는 것은 '인격적', '성교육', '생식력 자각', '감정 주기' 등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나타나는 여러 갈등들을 '인격적', '성교육'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공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에서는 피임법을 가르치면서 개인의 선택 사항이라는 이유로 '성 행위'의 결과에 대한 예방을 가르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런 교육이 만연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성'은 마치 개인의 소유물이고 책임질 행동만 하지 않으면 되는 쾌락의 도구가 되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성'에 대해 부모와 아이들에게 사제인 저는 교리적인 교회의 입장을 알려주려고만 했었고, 제 스스로도 시원한 답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인격적', '성교육'은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참된 '성교육'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는 '답'이었습니다. '성'(Sex)과 섹슈얼리티가 가진 그 본질의 의미부터 성적인 존재의 가치 그리고 그 존재들이 인격적 관계를 잘 맺으며 잘 사랑하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성교육'의 목표라고 생각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개인의 취향을 존중받고 싶어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들로 인해서 '성'에 대해 '혼돈'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혼돈'속에서 저는 많은 이들이 틴스타 교육을 통해 '성'(Sex)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갖기를 바라며 제가 속한 수원교구에서 틴스타 활동을 시작하려 합니다.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에서부터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교사 양성 워크숍 등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이 지닌 그 가치를 알려주고자 합니다.

책임질 행동을 피하게 만드는 교육이 아니라 참으로 책임감 있는, 인격적 인간으로서 성장시키는 '성교육'을 하는 '틴스타'(Sexuality Teaching in the context of Adult Responsibility)와 경기 남부 지역 틴스타를 위해 전국 틴스타 선생님들의 원과 기도 바랍니다.

사제와 성교육을?

정성호 시몬 신부
(부산교구 수영성당 보좌)

저는 부산교구 3년차 신부입니다. 해운대 바다와 가까운 우동성당 출신이지요. 부제로서 출항을 앞두고 있던 2019년 여름, 틴스타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본당의 김 헬레나 선생님과 보좌신부님의 파도에 휩쓸려 서울 가톨릭신학교의 틴스타 워크숍에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파도는 사제서품이라는 큰 파도에 사라지는 듯 하였지요. 그렇게 사제 서품을 받고 보좌신부로 생활하던 어느 날, 헬레나 선생님에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근처 성당 수녀님이 틴스타를 진행하셨는데, 다른 곳으로 가지게 되어 못하게 되었다. 신부님이 계신 성당에서 틴스타를 이어가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거기다 열정도, 성함마저도 비슷한 서울의 김 베로니카 선생님의 파도까지 더해져 그렇게 제가 보좌로 있는 이 곳 수영성당에서 틴스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5,6학년 남자 아이들과 시작해보자. 아이들과 논다고 생각하고 하면 된다하셨으니 해보자’ 하였지만, 막상 해보려니 만만치 않았습니다. 안다고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듣는 입장과 가르치는 입장은 정말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틴스타 선생님들이 존경스러웠습니다. 다시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시작해야 했지요. 강의 전에 미리 지도 교육을 받았는데요. 매주 시간 내어 도움주신 헬레나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5,6학년 남자 아이들은 보좌 신부인 제가,

부모 교육은 헬레나 자매님이 맡아 주셨습니다.

보좌신부님이 ‘성’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신기하고 흥미로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나 파도가 넘실대는 교리실이었죠. 아이들이 서로 발표하고 싶어해서 아이들을 통제하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지식만을 전하는 딱딱한 수업이 아니라, 사랑에 대해 나누는 시간이여서 좋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불꽃은 사랑받고 사랑하기 위한 불꽃임을, 성(性)과 성(聖)은 다른 불꽃이 아님을 이야기해주었지요. 단순한 ‘성’교육이 아니라 ‘인성’교육이고, ‘몸’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신학’을 말하는 이 틴스타 교육이 앞으로 더욱더 많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수료를 앞두고 있는 우리친구들이 ‘틴스타’라는 파도로 좋은 힘을 받아 사랑받고 사랑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도해봅니다.

바다로 이어지는 수영강을 바라보며.



성령 특은의 인호를 받으시오!

허혜주 아나스타시아 수녀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수원관구/ 서울대교구 일원동본당 주일학교)

그리스도와 의 더 긴밀한 결합,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친교를 세상으로 확장하여,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하는 견진 성사가 일원동 성당에서 있었습니다.

2년여 동안 이어지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성당은 행하니 비어있고 또래끼리 만나 전례를 준비하고 미사 때 성가를 크게 부르며 하느님을 찬양하고 교리에서 친교를 나누는 우리 아이들을 보는 것은 귀한 일이 되었습니다. 캠프도 모임도 없이 겨우 진행되는 대면미사와 비대면 교리로 주일학교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숙제를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슬아슬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릴 듯, 계속되는 상황에서 본당 견진성사가 계획되었고, 주일학교 담당인 저는 청소년과 견진성사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영과 육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과 참 신앙인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다르지 않고, 성당에서의 삶과 학교, 사회에서의 삶이 분리되지 않은 한 인격으로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싶은 지향, 사춘기를 지내야 하는 청소년들과 부모님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싶은 지향, 그리고 청소년 시기부터 자신의 몸을 사랑하고 돌보는 루틴을 마련해 주고, 이것을 주제로 가정에서 부모님들과의 대화의 물꼬를 트게 하고 싶은 지향을 가지고 여러 프로그램을 탐색하였

다. 이런 지향을 잘 표현하면서 견진성사와 잘 어울리는 프로그램이 무엇일까? 찾았습니다. 제 눈에 별 하나가 보였습니다.

‘틴스타는 성인의 책임감이라는 맥락에서 본 성교육을 의미한다.’는 소개글이 눈에 들어오면서 저의 세 가지 지향을 잘 담아내면서 영으로 어른이 되게 하는 견진성사, 사랑함에 있어 어른이 되게 하는 견진성사를 위한 준비로 부모교육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았습니다. 바로 ‘영성적(참된 사랑), 지성적(자기 결정 능력), 정서적(정서적인 성장의 이해와 공감), 사회적(더불어 살아감), 신체적(생식력 자각을 통한 몸의 이해) 면에서 총체적으로 인격성숙을 도와 어른이 되게 하는 틴스타’입니다.

본당 주임 신부님의 사목적 요청에 맞추어 본당 형편에 맞게 일원동 본당 청소년 견진성사를 위한 틴스타 프로그램을 한국 틴스타와 상의하였습니다. 견진성사 대상자인 청소년 프로그램은 교리 4회(성경, 성사, 전례, 기도)와 청소년 틴스타 교육 8회를 하고 부모님들은 교리 3회(성부, 성자, 성령)와 틴스타 3회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일 아침9시 청소년 미사를 드리고 이어서 교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임신부님과의 가족면담이 마지막 코스입니다.

교육을 준비할 때는 코로나 거리두기가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면교리의 가능성이 확실시 되

지 않은 긴장의 상태로 때때로 변하는 코로나의 사회적 분위기를 살펴보아야 했고 외부 강사님의 출현도 어색하기 이를 때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당 틴스타 교육 시작과 더불어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어 대면교리가 가능해지고, 주일 아침 일찍 집을 나서야 하는 강사님들의 수고로움이 더해지더라도 대면수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이 교육을 하느님께서 원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되었습니다. 본당의 두 신부님도 저의 중재를 믿고 맡겨주셨고 부모님들도 이리저리 교리시간과 장소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참석하시며 마음을 열고 교육에 참여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은 또한 성령의 움직임을 보는 듯 하였습니다.

특은을 베풀어 주시고 이것을 받을 사람들을 준비시키시는 성령님! 저도 성령님께 마음을 열며 저의 사람으로 맺어주신 주일학교 아이들, 교사들, 부모님들, 본당 신부님들, 공동체 수녀님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시험 기간의 결석, 코로나 확진된 강사님, 한창 사춘기인 아이의 주저함, 강사님들의 어려움 속에서도 발랄한 아이들의 조별 활동, 강사님들의 열정과 아이들을 존중하는 애정 어린 교육방법 등이 저를 기쁨의 성령으로 인도하였고 본당 자모님들의 협조 또한 호의의 성령을 만나게 하였습니다.

마지막 코스인 주임신부님과 견진 청소년들과의 면담에서 교리와 틴스타의 메시지가 종합되어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살아가자고 이끌어 주심을 보면서 저는 사랑의 성령을 만납니다.

틴스타 세 번째 부모교리까지 정성을 다해주신 틴스타 선생님들은 성실의 성령으로 저를 인도하였습니다. 사실 본당에서의 틴스타, 그것도

견진 성사의 준비로 이루어지는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틴스타 교육 전에 몇 가지 선제되어야 할 일들도 있었는데 이미 형성된 신앙 공동체인 본당 안에서 조금 더 융통성있게 틴스타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또한 성령께서 배려하심이라고 믿습니다.

'내 몸이 소중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다른 곳과는 달리 교육 방법이 참신했어요', '학교보다 디테일한 성교육으로 고려했어요', '좋은 대우 받는 느낌, 재밌었어요', '강사님들이 친절하게 잘 알려주셨어요'

틴스타 교육에 참여한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들과의 대화에서 표현한 내용들입니다. 차별 금지법, 낙태죄 헌법 불일치 판정, 조력자살 등 생명, 사랑, 성의 고유한 의미를 찾기 힘든 요즘 같은 때, 틴스타를 통해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 사랑, 성에 대한 참된 의미를 배우고 우리의 생명을 가꾸며 전인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눈뜨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하고, 열정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해주신 한국 틴스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들에게 새겨진 성령 특은의 인호가 생명, 사랑, 성의 전인격적 삶으로 표현되길 기도합니다.



경기남부

- 4.10 경기남부지역 교사회 조직을 위한 지역 교사와 담당신부님과의 첫 만남
- 6.19 Zoom 월례회의



188차 대구워크숍 심화과정

대구

- 2.24 Zoom 월례회의
- 4.28, 6.30 대면 월례회의
- 4.28, 6.9 책모임(13,14회)
- 5.1,9,15 188차 워크숍 심화과정
- 4.15 대건중학교 1,2학년 소개특강
- 5.26 임원회의



서울·경기지역 교사 대면모임 및 식사

4대리구 포항,경주

- 3.5, 4.23, 5.30 6.25 월례회의



인천 틴스타 5월 월례모임 및 미사

서울

- 1.13 Zoom 서울·경기지역 교사 신년회
- 5.15 서울·경기지역 교사 대면모임 및 식사

의정부

- 5.25 정기모임

인천

- 5.12, 6.12 월례회의



대구대학교 동춘성당 자모회 성인을 위한 틴스타

2022 상반기 한국틴스타 수업현장			
	지역	현장명	담당교사
학교	과천	관문초등학교(어린이)	백현주
	광주	상무초등학교(어린이)	박하영, 이혜미, 장남희, 임하영, 이명효, 고선희
	대구	효성여자고등학교(여성)	사금연, 배수경
		대명중학교(소년소녀)	조홍범
	대전	가톨릭대학교(성인)	이의정 신부, 김혜정
	부천	부천자유발도르프학교(소년소녀)	이창영 신부
	포항경주	오천중학교(소년소녀)	신현옥, 최성금, 김외택, 배수경, 사금연, 홍경희, 문태근
종교 단체	대구	동촌성당(성인)	홍경희, 배승은
		범물성당(성인)	배승은, 배수경
	서울	연희동성당(어린이)	이희진
		일원동성당(소년소녀)	송선배, 김기환, 백현주, 박병남
	포항경주	안강성당(소년소녀)	김민아, 최성금, 서성진
	부산	수영성당(어린이, 성인)	정성호 신부, 김미정
기관	의정부	꽃마리청소년회복지원시설(여성)	조정란
기타	인천	부천3동 개별그룹(어린이)	조정옥



부산 수영성당 어린이를 위한 틴스타(11-12세)



포항 오천중학교 학교 소년소녀를 위한 틴스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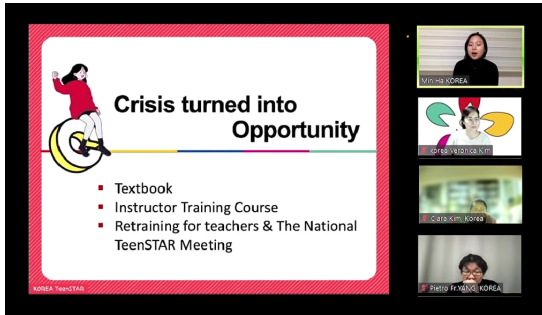
서울 일원동 성당 소년소녀를 위한 틴스타



대구 효성여자고등학교 여성을 위한 틴스타

국제 틴스타

- 1.29 국제틴스타 온라인 모임



전국 대표교사회의

- 2.7 Zoom 회의

부모 세미나

- 2차 부모세미나(9-11세)
2022.1.4.~3.15 온라인 세미나
- 3차 부모세미나(12-13세)
2022.1.7.~3.18 온라인 세미나
- 4차 부모세미나(12-13세)
2022.5.10.~7.12 온라인 세미나

전국 강사양성모임

- 5.20~22(2박3일) 평창 라베르나 기도의 집



교사양성 워크숍

- 184차 온라인워크숍(12주)
2022.1.5.~3.30
- 185차 부천자유발도르프학교 교사워크숍(4일)
2022.2.7.~10 부천자유발도르프학교
- 186차 부산 정관성당 워크숍(4일)
2022.2.6,13,20,27 부산 정관성당
- 187차 몽골리아 온라인 워크숍(5일)
2022.3.6./13/20/27, 4.3
- 188차 대구워크숍 2022.3.19.~20,26~27
대구대교구 청년청소년국 대안동센터
- 189차 인천워크숍 2022.3.19.~20,26~27
인천교구 사회사목센터
- 190차 푸른숲발도르프학교 교사워크숍(7일)
2022.5.12.,19, 6.2,16,30, 7.14,22
- 191차 푸른숲발도르프학교 학부모워크숍(8일)
2022.6.4.,11,18,25, 7.2,9,16,23
- 192차 온라인워크숍(12주)
2022.6.8.~8.24
- 193차 서울가톨릭대학교 부제반 워크숍(4일)
2022.7.4.~8 서울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 194차 대구대교구 4대리구(포항경주) 워크숍(4일)
2022.8.27.~28, 9.3~4 포항장량성당



185차 부천자유발도르프학교 교사 워크숍



186차 부산 정관성당 워크숍



187차 몽골리아 워크숍



188차 대구대교구 워크숍

교육

- 5.24~25 관문초 학부모교육(강사: 김혜정)
 - 주제: 자녀와 소통하는 공감 성교육
- 5.29 행복한 가정운동 워크숍(강사: 김혜정)
 - 주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



출판

- 용서-근원으로 향하게 하는 희망 : 호세그라나도스 신부 저, 손호빈 신부 역
- 어린이를 위한 틴스타 수정 보안 : 교사용과 학생용 워크북 분권, 마음달력 제작 첨부, 영상 자료 QR코드 보안



한국틴스타 후원 안내

한국틴스타는 여러분의 도움으로 일궈나갑니다. 후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의 CMS 신청서를 작성하시거나 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

우리은행1005-100-998647 (예금주:한국틴스타)

* 후원자님을 위한 생명미사를 매달 봉헌합니다. 함께 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 전국 교사 모임

아무런 조건없이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진심으로 사랑해 본 적이 있나요?

자기증여의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느님의 조건없는 자기증여의 체험을
하고 있을까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사랑의 은총에 합당한 모습으로
응답하고 있나요?

2022년 전국교사 모임에
사랑으로 초대합니다.

일정: 11월 12일(토)~13일(일) 1박 2일
장소: 미정 (대면 추진. 사회 전반적인 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 전환할 수 있음)

주제 : 인간의 진리와 사랑의 소명

1. 삼위일체, 자기 증여의 원천이자 예형
2. 자기 증여의 전형, 남녀의 혼인적사랑
3. 자기 증여, 인격적 사랑의 바탕





Teen STAR

발행일 2022년 9월 (통권 56호 발행)
창간호 2004년 10월
발행처 한국틴스타
홈페이지 <https://teenstar.or.kr>
주소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 74 영성센터 사무동 401호(한국틴스타)
E-mail kteenstar@hanmail.net
전화 02)727-2357~9 / 02)755-2629
팩스 02)727-2243